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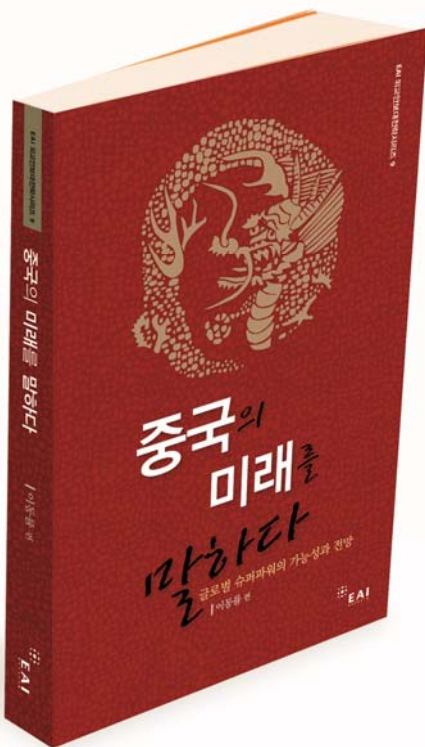
# 중국,



## 글로벌 슈퍼파워로 등장할 것인가?

| 한국의 대표적 중국전문가들의 중국미래 진단 |

###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한계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패널은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우리는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첫 번째 성과가 바로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중국의 글로벌 슈퍼파워로의 등장 가능성과 과제를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안보 각 영역별로 분석하고, 중국의 비전과 전략을 근거로 약 10년 후인 2020년경 중국의 변화된 국내상황, 국제적 위상,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전략 및 정책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과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중국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편저자\_ 이동률                      ● 출판사\_ (재) 동아시아연구원                      ● 발행일\_ 2011년 4월 5일
- 가 격\_ 15,000원                      ● ISBN 978-89-92395-14-4 93340
- 문 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번지 삼풍빌딩 909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중국에게 2020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2020년은 중국공산당 창당(1921년)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해이다. 정치 일정상으로 2022년은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개최되는 시점으로 2012년 새로 출범할 5세대 지도부의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국 최대의 국가목표인 소강사회의 전면적 실현을 달성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2020년은 21세기를 기준으로 중국의 부상이 완성되는 2050년의 중간 지점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2020년경 중국을 분석의 대상을 삼고 있는 이 책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문제를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안보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의 부상을 전망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 사회영역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해왔다. 향후 정치, 사회영역은 부상하는 중국의 성격을 규정하고, 중국의 부상을 제약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중국이 제시하는 비전과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이 지향하는 미래 강대국상의 실체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 강대국화를 지향하는 중국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_이동률

중국은 향후 “어떠한 강대국이 되려 하는가?” 하는 중국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어떠한 강대국이 될 것인가?”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강대국화의 비전과 전략을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이 지향하는 강대국의 미래상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30년의 개혁개방 과정을 돌아보고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다. 이어서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강대국화의 국가 비전과 전략을 큰 틀에서 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비전과 전략이 중국이 안고 있는 과제와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 중국의 정치개혁 : ‘중국적 특색의 민주주의’ \_이정남

개혁개방 정책의 실행이 30여 년을 거치면서, 중국의 개혁정책의 초점은 경제에서 정치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와 지식인들 사이에는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인권, 시민사회, 법치 등은 이제 중국 지식인들의 주류 담론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정치개혁 방향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개혁은 보다 공평하고, 절차화되고, 지속 가능한 ‘탄력적인 권위주의체제’의 수립이고, 이 과정은 공산당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다. 그 결과 당정이 구상하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보다 선명하게 대별되면서,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적 전환 과정의 복합적인 구도가 서서히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산층의 팽창과 중국의 민주화 \_김영진

2020년까지는 중산계층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권위주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민주화 세력으로 대두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경제위기로 인해 중산층의 공산당에 대한 이반현상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러한 공산당의 위기가 바로 민주화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관건은 앞으로 성장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지속유지 여부는 아래로부터의 사회불안, 중산계층을 비롯한 각 계층들의 반응 그리고 정부의 정당성과 선택의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은 오히려 더 강력한 독재권력으로 전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중국의 부상과 중미관계 전망\_한석희

중국이 외교전략의 변화에 따라 대미 외교에서도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는 상호주의적 헤징(reciprocal hedging)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자국의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또한 규범제정(rule-making)과정에 참여하면서 초일류 강대국으로서의 열망을 추구해 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패권전쟁에 의한 세력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국제적 규범 및 규칙, 그리고 가치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러한 규범·규칙·가치를 자국의 상황에 유리하게 만들어감으로써 세력전을 비폭력적 합법적 형태로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 룰 메이커?\_박병광

중국은 2020년경 동아시아에서 오늘날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독점적 패권의 수준에 다다른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변수’로서의 지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내질서의 새로운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서 등장할 것이며,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공동 관리자’(joint dominator)로서 지역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스스로 동아시아의 주도국이 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중국이 지역 강국의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요소이다.

## 중국 국방정책 전망 : 방어적인가, 공세적인가?\_하도형

중국정책은 2020년 무렵에도 종합국력의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협력 발전’ 원칙하에 국지적 지역적 분쟁 대비가 안보정책의 기조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어도 2020년까지는 종합국력의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지적 지역적 분쟁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동시에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해 볼 때,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긴장과 충돌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지적 지역적 차원의 군사력 우위확보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공세적 군사전략이 지역 주도권 장악의 기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 경제강대국화는 순항할 것인가?\_정환우

2020년까지 공산당의 집권능력이 유지되고 정치안정이 확보된다면 중국은 거대 규모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산업기술 수준도 꾸준히 제고되어 ‘독자적 경제 강대국화’ 시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국이 2020년까지는 세계적 범위에서 경제적 헤게모니 지위에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강대국 지위를 확고히 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통상규범, 위안화 국제화, 통상협력 분야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거대 규모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산업기술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축통화 문제에서 볼 때도 중국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안화는 자유로이 태환될 수 없으며 위안화 및 중국 금융체제의 한계 때문에 중국 정부가 태환화를 허용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미래 : 우리의 대응전략은?\_이동률

부상하는 중국은 한국과 한반도를 영향력 확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영향력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모색해 왔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과 정책은 안보딜레마를 해소하면서 안정적인 한반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안보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인식과 실제 정책 사이의 괴리는 산적한 국내외적 제약과 과제를 해결하면서 여전히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한국 또한 세계적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 미중관계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상대적 약소국의 입장에서 미중관계의 변화를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마저도 상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한국이 직면한 현실이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설픈 양다리 걸치기(hedging strategy) 또는 관성적인 편승(bandwagon)을 모색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독자적인 생존 공간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갈 필요가 있다. 향후 10년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할 것이다. 향후 10년간 한국이 부상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는가는 향후 초강대국 중국과의 관계를 규정할 것이며, 나아가 강대국간 세력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의 장기 비전과 전략, 그에 따른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우리의 대응과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 목차

1장 중국 비전 2020 : 초강대국화 전략과 과제	이동률
2장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전망	이정남
3장 중국의 사회변동과 민주화 전망	김영진
4장 중국의 외교전략과 중미관계 전망	한석희
5장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전망	박병광
6장 중국 국방정책의 평가와 전망 : 방어적인가, 공세적인가?	하도형
7장 중국의 대외경제전략 전망	정환우
8장 중국의 초강대국화와 한반도의 미래	이동률

## 필자약력

### 김영진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독일 베를린 대학교(Freie Universitaet Berli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희대, 성균관대, 서울대, 숭실대 등 시간강사, 중국 북경대 방문학자, 미국 클레몬트(Clarmont Colleges)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정치경제학 이론, 중국 노동시장, 특히 최근에는 중국고대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작에는 《중국의 시장화와 노동정치》(1998), 《중국의 도시 노동시장과 사회》(2002, 2011),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2005) 등이 있다.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연구위원. 상하이 푸단대학교(上海復旦大學)에서 중국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도쿄대학(東京大學) 동양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대외관계 및 동아시아 안보이며 <국민일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공군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China-North Korea Economic Relations during the Hu Jintao Era”(2010),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2010), “중국의 우주군사력발전에 관한 연구”(2009)와 다수가 있다.

###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중국패널 위원장. 중국 북경대학교(北京大學)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방문학자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현대중국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작에는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2010), 《중국외교 연구의 새로운 영역》(공저, 2008),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2008), “중국 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중국화 전략 : 현황과 함의”(2006) 등이 있다.

###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부교수 겸 중국연구센터 부센터장이며,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 패널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영문과 졸업, 정치외교학과 석사 및 중국 북경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중전문가 공동 연구위원회 집행위원 및 정치분과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평화연구소의 연구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정치 개혁과 민주화, 대외관계 등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조화세계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 : 중화질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2010), “China’s soft power in East Asia: an estimation based on the outcome of surveys,”(2009)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theory of Chinese-Style Democracy,”(2010)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참여, 그리고 정치변화》(2007) 와 다수가 있다.

## 정환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중국정치 전공)를 취득하였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 중국 남경대학 및 상해사회과학원 방문학자,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상임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 중미 통상관계, 중국 정치경제, 한중 통상관계 등이며, “차이나포럼” 사무국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작에는 《차이나트렌드 2010-2011》(공저, 2010), 《중국외교 연구의 새로운 영역》(공저, 2008), “세계화와 추격전략 : 자동차 산업을 통해 본 중국 (신)산업통상정책의 성과와 한계”(2009), “과욕과 현실적 제약의 딜레마 : 중국의 FTA 경험”(2008) 등이 있다.

## 하도형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국제관계학부 부교수.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제관계연구실장, 안보전략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정치, 대외전략, 국방전략 등이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객원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중국 대외정책의 전환에 관한 연구 : 조화세계의 제기와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한중 국방교류의 확대와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방식의 변화 : 공산당 기층조직 건설의 배경과 함의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 한석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겸 국제학대학원 부원장,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동대학원 석사, 미국 플래처스쿨(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석사 및 박사. 북경대학교 정부관리학원(北京大學政府管理學院) 강의교수, 중국사회과학원 아주-태평양연구소(中國社會科學院亞洲-太平洋研究所) 특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및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역임. 주요 연구로는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대외관계》(2007), “Korean Perceptions of China’s Rise in East Asia,” *Korea in the New Asia: East Asian Integration and the China Factor*(2007), “From Engagement to Hedging: South Korea’s New China Policy”(2008) 등 30여 편이 있다.



#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짚을 띄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AI는 연구활동의 성과를 단행본,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워킹페이퍼, 이슈브리핑 등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미디어를 통한 지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와 포럼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각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역할·권한·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국민여론·소수정부·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EAI 영문서적**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5.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6.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2001-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http://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